

애호랑나비와 서식지

애호랑나비는 일본애호랑나비와 함께 **봄의 여신**으로 알려진 나비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귀중한 나비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애호랑나비와 많이 닮았지만, 일반적으로 애호랑나비가 더 작고, 일본애호랑나비는 주황인 반면 애호랑나비는 노란색 부분이 넓고, 출현시기는 그 곳의 벚꽃 개화기와 비슷하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와 혼슈에 분포하지만, 혼슈에서는 기후초보다 북쪽 산지에 분포한다.

성충은 1년에 1번 발생하고, 쥐방울덩굴과의 죽도리풀을 먹고 번데기로 월동한다.

안타깝게도 채집 매니어나 분별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잡고 있어, 이대로 가면 이 종이 조만간 멸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